

Before the beginning and after the end.  
And all is always now. (CPP, 175)

이처럼 끝이 시작에 앞서고, 시작의 전과 끝나고 난후에도 끝과 시작이 항상 거기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이며 무엇일까? Ethel F. Cornwell은 이 still point는 “일종의 영(靈)의 중심”<sup>38)</sup>이며, 단테(Dante)가 말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자(者), unmoved mover><sup>39)</sup> 곧 신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still point는 단지 역설 paradox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

돌고 있는 세계의 정지된 한 점, 살(肉)도 아니고 살이 아닌 것(非肉)도 아닌.  
그곳으로부터로 아니고 그곳을 향해서도 아닌, 항정점(恒停點) 거기에 춤이 있다.  
정지도 아니고 움직임도 아니다. 그것을 고정이라고 불리진 안된다.  
과거와 미래가 합치는 점이다. 그곳으로부터 또는 그곳을 향한 운동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다. 이 점, 이 항정점이 없으면  
춤은 없다. 그리고, 거기엔 오직 춤만이 있을 뿐이다.

At the still point of the turning world, Neither flesh nor fleshless;  
Neither from nor towards; at the still point, there the dance is,  
But neither arrest nor movement, But do not call it fixity,  
Where past and future are gathered. Neither movement from nor towards,  
Neither ascent nor decline. Except for the point, the still point,  
There would be no dance, and there is only the dance. (CPP, 173)

Eliot의 still point에 대한 묘사는 이처럼 아주 신비적이고 역설적이다. 살도 아니고 살이 아니지도 않은 것, 움직임도 아니고 정지도 아니지만, 춤이 있는 곳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합쳐져 있으며, 위로의 운동도 아니고, 또한 아래로의 운동도 아닌 것, 향해가는 운동도 아니고, 거기로부터 멀어져가는 운동도 아닌 이 still point를 필자는 편의상 항정점(恒停點)이라고 번역했다. still이라는 말은 <언제나>의 뜻인 항시(恒時)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고정 fixity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still point에는 <항시>의 시간과 <정지>의 공간이 합쳐진 곳이다. 이는 Big Bang theory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역사의 시작인 특이점 singularity 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비스런 항정점은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Eliot의 체험 속에서 살아 난다. 그는 항정점을 자신의 영혼의 중심에 놓는 경험을 함으로써, 항정점이 자신의 신비체험의 중심이 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은 곧 그와 항정점이 합쳐짐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항정점은 하나의 영적인 중심으로 볼 수 있고, 『네 사중주』를 이루고 있는

38) Ethel F. Cornwell, *The "Still Point"* (Rutgers Univ. Press, 1962), 49.

39) Cornwell, P.44.

모든 시편들은 이러한 중심과의 합일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는 것이다.<sup>40)</sup> 항정점과의 합치를 이루었을 때의 경험을 Eliot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거기에> 우리가 있었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얼마 동안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곳을 시간안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 욕망으로부터의 내적인 자유,  
행동과 고뇌로부터의 풀려남, 내적·외적인  
계약으로부터의 풀려남 그러나 그것은  
감각의 은총(恩寵), 정중동(靜中動)의 흰 빛,  
동작없는 앙양(昂揚), 배제(排除)없는 집중  
부분적인 법열(法悅)의 완성이고,  
부분적인 두려움이 없어지는데서  
이해되고 뚜렷해지는  
새로운 세계인 동시에 낡은 세계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사슬은  
변화하는 몸의 연합함으로 짜여져 있지만,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I can only say, *there* we have been: but I cannot say where.  
And I cannot say, how long, for that is to place it in time.  
The inner freedom from the practical desire,  
The release from action and suffering, release from the inner  
And the outer compulsion, yet surrounded  
By a grace of sense, a white light still and moving,  
*Erhebung* without motion, concentration  
Without elimination, both a new world  
And the old made explicit, understood  
In the completion of its partial ecstasy,  
The resolution of its partial horror,  
Yet the enchainment of past and future  
Woven in the weakness of the changing body,  
Protects mankind from heaven and damnation  
Which flesh cannot endure. (CPP, 173)

이러한 경험은 곧 항정점과의 합일을 보여준다. Cornwell에 따르면, “항정점과의 합일은 [곧] 신과의 합일과 같다. 항정점과의 합일은 영적인 창조의 중심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영적인 창조의 중심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영적인 창조의 중심은 [모든] 실재의 중심으로서, 그곳에서는 모든 상반(相反)되는 것들이 화해를 이루는 곳이다. [또한] 거기엔 신의 패턴(pattern)이 창조되는 곳이다.”<sup>41)</sup> 그리고 Cornwell은 이러한 Eliot의 항정점 still

40) Cornwell, p. 49.

41) Cornwell, p. 60.

point은 “기독교적인 개념을 지성으로 사유하여 보여주는 것 the intellectualized presentation of a Christian concept”<sup>42)</sup>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단순화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항정점에는 Eliot가 지금까지 불교와 힌두교의 신비주의에서 경험한 것들이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융화를 이룬 “배제(排除)가 없는 집중 concentration/Without elimination”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를 위의 인용문에서 보기로 하자.

우선 Eliot는 이러한 항정점과의 합일의 경험으로 인하여, <부텨해지는 새로운 세계인 동시에 낡은 세계 both a new world/And the old made explicit>을 경험했다. 이는 곧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경지와 같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경지는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으며, 둘이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둘로 보이는”<sup>43)</sup> 경지이다. Eliot가 보여준 <배제가 없는 집중>의 경지, 그리고 <부텨해지는 새로운 세계인 동시에 낡은 세계>는 곧 이러한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Eliot의 항정점은 P.S. Sri의 지적처럼 “기독교와 힌두교 그리고 불교의 개념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는 것”<sup>44)</sup>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William Skaff의 지적대로 Eliot의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태도는 불교의 수동적인 태도 negative way와 십자가의 성요한 St. John of the Cross의 수동적인 태도가 결합한 산물로 볼 수도 있다.<sup>45)</sup>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로서의 항정점 still point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이미지리 중에서 우리는 빛의 이미지리를 들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서도 <정중동(靜中動)의 흰 빛 a white light still and moving>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빛의 이미지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리 중의 하나이다. 이는 곧 신비적인 개안(開眼) 상태(mystical vision)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이미지리는 물의 이미지리이다. 이 두 가지의 이미지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버언트 노오튼 Burnt Norton>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묘사이다.

연못은 마르고, 콘크리트는 마르고, 번두리는 갈색,  
 햇빛이 비치자 연못은 물로 가득 차,  
 연꽃이 가벼이 솟아 오르며,  
 수면은 햇빛의 중심에 부딪혀 번쩍인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등뒤에서 연못에 비치고 있었다.

Dry the pool, dry concrete, brown edged,  
 And the pool was filled with water out of sunlight,  
 And the lotos rose, quietly, quietly,

42) Cornwell, p.40.

43) Christmas Humphreys, *Zen Buddhism* (New York: Macmillan, 1964), p.108.

44) P.S. Sri, *T.S. Eliot, Vedanta and Buddhism* (Vancouver: Univ.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5), p.48.

45) Skaff, p.230, n.59.

The surface glittered out of heart of light,  
And they were behind us, reflected in the pool. (CPP, 172)

이 장면은 장미원(rose-garden)에서 햇빛이 빈 수영장에 비칠 때 Eliot가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깨달음을 보여 주는 햇빛의 이미지가 빈 수영장에 비쳐, 비었던 수영장이 햇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물로 가득 차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비의 깨달음은 햇빛이기도 하지만, 또한 물의 이미지리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미원의 한 가운데에 있는 빈 수영장에서, Eliot가 연꽃을 보는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주 의미 심장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장미원의 수영장에서 장미를 보는 경험을 했다면 아무 이상할 것이 없겠으나, 여기에 나타나는 연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수영장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시간과 영원의 교차점에서 Eliot의 신비경험의 극치를 보여준다.<sup>46)</sup> 더구나 여기에 나타나는 연꽃과 장미의 대비는 동양과 서양의 신비주의의 통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sup>47)</sup> (여기에서 lotos 다음에 나오는 rose는 명사로서의 장미가 아니고 동사 rise의 과거형으로 쓰인 것이긴 하지만, 이 경우 우리는 단순한 문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lotos rose는 연꽃과 장미의 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48)</sup> 이처럼 Eliot는 그의 신비경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의 묘사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신비주의의 경수를 이루는 연꽃과 장미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그의 신비경험이 동양적인 요소를 배제한 단지 기독교적인 신비경험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liot가 보여준 신비경험의 특색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세상 밖의 다른 세상에서의 경험에 있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있어 <영원 eternity>을 경험하는 신비적인 경험 세계는 시간속에서 시간을 정복하여 다다르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신이 인간의 역사에 작용하는 예수의 강생과 같은 의미의 맥락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순간에 의한 시간의 정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미원에 있는 순간과  
비가 내리치는 정자(亭子) 밑에 있는 순간과  
저녁 연기 오를 때 바람 잘 통하는 교회에 있는 순간은  
다만 시간 안에서만 기억될 뿐이다. 그것이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시간은 시간을 통하여서만 정복된다.

But only in time can the moment in the rose-garden,  
The moment in the arbour where the rain beat,  
The moment in the draughty church at smokefall  
Be remembered; involved with past and future.  
Only through time time is conquered. (CCP, 173)

46) Ishak, p. 109.

47) Milward, p. 26.

48) Milward, p. 26.

이제 Eliot는 그가 추구하는 신비 경험이 그의 손에 닿지 않는,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그의 신비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신비의 세계는 우리 가까이 있는 세계이며, 우리의 기억에 있는 세계이다. <보이지 않는 폭포의 소리(CPP, 197)>, <나뭇잎 그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감추려고 하는 웃음소리(CPP, 176)>, 새의 노래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백리향이나 또는 겨울 번개(CPP, 190)> 등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생생한 체험이지만, 또한 신비 경험을 이루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Eliot의 신비 경험은 <여기, 지금, 그리고 영원히 here, now, always>라고 집약될 수 있다. <지금>과 <여기>가 바로 <영원>을 만드는 뼈이고 살이기 때문이다.

빨리, 자, 여기, 지금, 언제나—

우습게도 쓸모없는 시간은

앞으로 뒤로 펼쳐 있다.

Quick now, here, now, always—

Ridiculous the waste sad time

Stretching before and after. (CPP, 176)

### Ⅲ. 맺는 말

Eliot에게 있어서 신비주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 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속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그는 처음에는 시간을 공간화함으로써 시간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동시적인 경험 immediate experience나, 객관적 상관물의 이론 objective correlative, 비개성의 원리 impersonal theory, 그리고 전통 tradition에서 나타나는 그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공간에 잡아두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 한편, 그는 동양의 신비주의, 즉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시도의 실패는 인간의 역사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의 역사를 빼놓았기 때문이었다. Eliot는 영국의 성공회신자가 됨으로써,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살아 있는 신의 역사를 알고 이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생각은 Eliot의 pattern과 항정점 still point 같은 생각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로서의 Eliot는 그가 가지고 있던 동양적인 신비 경험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신비 경험의 깊이와 폭을 넓힌다. 특히 이러한 신비주의의 넓은 폭은 그의 후기시인 『네 사중주』에 잘 나타나 있다. 신의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시간은 이제는 살아 있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시간은 시간에 의해서 정복될 수 있게 된다.

그의 신비주의의 특징은 <지금>과 <여기>가 <영원>을 이루는 요소가 됨을 깨닫는 데 있

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미지들은 이 세상의 이미지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비경험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기도 하다. 그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그의 모든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의 이러한 관심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남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Abstract》

**Confusion of Values in Turbulent Times and  
T.S. Eliot's Mysticism**

**Chong-Ho Lee**

T.S. Eliot, a major Twentieth-Century English poet, has witnessed and lived through the cataclysmic changes represented and caused by the two World Wars. These turbulent times have caused him to see through the futility of human existence in the spiritual Waste Land of his own making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His tendency to search for meaning takes on the quality of mysticism. In this paper I try to show that Eliot's mystical tendency is a major factor throughout his life and is found in many of his works.

In the early stages of the development, his mystical tendency finds its way in his critical concepts such as objective correlative, immediate experience, and the impersonality of poetry.

What he wants to do in these concepts is to spatialize, visualize, and fix time through concrete imageries. His concept of tradition, however, is an improvement over these critical concepts in that tradition presupposes synchronic existence of the past in the present.

His later ideas such as still point and pattern, however, are contingent upon the idea of the Incarnation of Christ in time, and in this respect they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his earlier critical concepts. In his later stage, Eliot sees the importance of history as a meeting of time with the timeless in pattern and still point. This is possible only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Incarnated Christ. These ideas are very clearly shown in *Murder in the Cathedral* and *Four Quartets*.

Even though Eliot's Christian mystical element is prominent in his later period (especially after his conversion to Anglican Church in 1927),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 Oriental influences in his mystical tendency. For instance, the absence of ego (self) found in his impersonal theory of poetry in the early stage of his life is still found in his later poem *Four Quartets*. This means that the Buddhistic and Hinduistic elements have stayed with him throughout his life.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mysticism to Eliot is not rejecting this world and seeking after refuge in the other world. His mysticism is firmly based on "here" and "now", and this "here" and "now" is the backbone of his "always". The fact that he uses concrete images throughout his poetry bears this out.